

태고 보우스님탄신 702돌 기념 고려 국사추대·어사행렬 재현

사나사·양평불교사암련 공동주최



◇2001년 사나사에서 태고보우 탄생 700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사 추대식 재현 모습.

‘태고보우 스님이 국사로 다시 추대된다.’

양평 사나사주지 화합은 10월 1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태고 보우 스님 탄신 702돌을 기념해 고려시대 국사 추대식 및 어사행렬 재현과 추모다례제, 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양평불교사암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301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고려말에 왕사(王師)와 국사(國師)를 역임한 보우 스님의 얼을 기리고자 2년전부터 마련한 것.

이날 행사는 보우 스님을 국사로 추대하기 위해 사나사를 찾은 ‘어사행렬의 재현’으로부터 시작된다. 사

나사 신도회와 양평군 청년회원 3백여 명이 어말선초(麗末辭初)의 어사, 의장대, 문무관, 군병 등의 전통 복장을 갖추고 양평읍내와 사나사 일대를 행렬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사나사에서 보우 스님의 국사 추대 의식 재현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산사음악회. 단골 출연가수인 강산애와 해바라기를 비롯해 국악인 유주희와 엄경애, 꼬마가수 김용빈, 현악 4중주단 로터스 등이 음성공양을 들려 준다. 한편 11일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양평역까지 산사음악회 특별열차가 운행된다. (031)772-5182.

김주일 기자



◇연꽃 문양과 ‘용’을 변형시켜 프린트한 넥타이.

10월 2일 오후 6시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는 ‘2003경주 문화엑스포 기념 초청 패션쇼’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패션디자이너 최복호(55)씨가 안동 봉정사 귀일 스님의 기와 그림을 보고 현대 감각에 맞게 디자인 한 드레스와 치마를 비롯해 넥타이, 속옷, 베게, 머플러, 앞치마 등 생활용품 13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불보살·연꽃문양 문화상품

최복호씨, 2일 경주현대호텔서



◇단청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한 드레스.

불교문양 정말 色 다르네~.

이번 문화상품에 등장하는 디자인들은 눈에 봐도 대부분 화려한 인상을 준다. 귀일 스님의 기와 그림에서 모티브를 따 왔기 때문이다. 소재 또한 ‘불·보살’, ‘비천상’, ‘동종’, ‘사리탑’, ‘연꽃’ 등 다양하다. 그래서 작업과정이 녹록치 않았다.

최씨는 스님의 기와 그림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뒤집거나, 확대해 보기도 하고 때론 색분해도 하면서 현대적으로 디자인했다. 넥타이와 머플러, 남방, T-셔츠 등 옷에는 불·보살을 변형시킨 디자인을 집어넣었다. 또 팬티와 파자마에는 연꽃문양을 새겼다. 앞치마에는 십이지신상을 변형시켜 프린트했다. 특히 울, 실크, 니트, 폴리에스테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의상들은 전통의 감성을 현대적인

퓨전으로 표현해 우아하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씨와 귀일 스님과의 인연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연히 주말 여행중 봉정사를 방문한 최씨가 전통문양이 가득한 스님의 기와 그림을 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공하면 경주문화엑스포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다문화 한국 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서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최씨가 직접 ‘금수’를 입고 우주의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여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한다.

김주일 기자 jkim1@buddhapia.com



◇스리랑카 프라사나비타게 감독의 ‘8월의 태양’ 중 한 장면.

‘제 8회 부산영화제’가 10월 2일 개막된다. 이번 영화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시아 영화 98편을 포함해 총 60개국에서 244편의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뉴커런츠, 한국영화 피노키오, 와이드앵글’ 등 모두 9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영화제에서 주목할 것은 ‘아시아 영화의 장’.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열리는 영화제답게 올해에는 젊고 유망한 신예감독들이 다수 출품했다. 불자들이라면 종교와 내전 문제를 다룬 프라사나 비타게 감독의 ‘8월의 태양’ (스리랑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여성억압 문제를 조명한 사비하 수마르의 ‘침묵의 물’

부산영화제 10월2일 개막

역대 최대규모...60개국서 244편 출품

(파키스탄), 방황하는 젊음을 그린 펜에 라타나 무앙의 ‘우주에서의 마지막 삶’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현실과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영화들을 쟁겨볼만 하다. 또한 부탄에서 잠양 키엔제 왕국의 환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키엔제 노루부 스님의 신작 ‘여행자와 마법사’도 불교와 관련된 영화다.

개막작은 일본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도플갱어(Doppelgänger)’가, 10일 폐막작으로는 한국 박기형 감독의 ‘아카시야’가 선정돼 있다. www.piff.org.

한상희 기자

‘화엄경 강의’ 등 9개프로 신설

불교TV, 13일부터 가을개편 단행

불교TV는 ‘화엄경 강의’, ‘디지털 동의보감’, ‘청아스님의 영어법문’ 등 10월 13일부터 9개의 프로그램을 신설, 가을개편을 단행한다.

경전강의 프로그램도 새롭게 단장해 <법화경> 강의를 진행하던 무비스님에 이어 수진스님이 <화엄경>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민족 전통 의학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법을 알아보게 될 ‘디지털 동의보감’과 의학프로그램 ‘메디칼’ 등 건강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도 방

송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교교리와 상식을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하재봉의 영화로 본 불교’와 불교 문화 ‘부처님이 보여요’와 ‘청아스님의 영어법문’ 등 문화, 포교관련 프로그램도 새롭게 편성됐다.

편성제작국의 양홍식 프로듀서는 “이번 개편에는 건강 프로그램이나 영어법문 등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가을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동의보감’.

크스님 초청 특별법회

무상사, 10월1~5일

불교TV 무상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크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법회에는 조계종 기초 선원장 지원 스님(1일), 부산 감포사 주지 혜종(2일), 송광사 주지 현봉(3일), 원명사 회주 묘허(4일), 통도사 강주 해남 스님(5일)이 각각 초청돼 불자들에게 설법한다. (02)3270-3492.

한상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Et Marv** <ch 32>

06:05 불교강좌	서울 FM 101.9 MHz	2월 13:20 해월스님 특강
09:05 차 한잔의 선율	부산 FM 89.9 MHz	3월 09:20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 문화인
12:00 정오종합뉴스	대구 FM 94.5 MHz	4월 09:20 설수진의 러빙유
14:45 고승열전	광주 FM 96.7 MHz	5월 11:30 이화숙의 노래교실
17:10 무명을 밝히고	대전 FM 100.1 MHz	6월 13:20 덕신스님의 사찰문화여행
23:05 세계음악여행		7월 14:25 특별법문 전경스님

아이리이트

- 불교방송:△세계음악여행(10월 5일 11:05-01:00)=음악칼럼니스트 강민석 씨의 진행으로 남유럽, 중앙아시아 등 조금은 생소한 지구촌 음악을 접해본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세계음악과 시공간을 초월해 그려보는 아름다운 사유, ‘내 마음의 지도’가 준비돼 있다.
- 불교텔레비전:△설수진의 러빙유(10월 4일 09:20-10:30)=‘설수진의 러빙유’에서는 국악인 신영희 씨를 초대해 판소리 인생 50년을 맞은 그의 삶을 들여다본다. 11세 때부터 소리를 시작해 한 평생 판소리의 맥을 지켜오기까지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의 감동스토리가 펼쳐진다.

스님!! 좋은 달력을 추천합니다.

매년 똑같은 달력에 식상 하셨습니까?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최고급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마하몰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p>전각 수인(手印) 310mm × 310mm</p>	<p>전각 금강경 310mm × 310mm</p>	<p>석불(石佛) 310mm × 310mm</p>	<p>사진 연화(蓮花) 310mm × 310mm</p>	<p>유화 연화(蓮花) 310mm × 310mm</p>
------------------------------------	---------------------------------	---------------------------------	------------------------------------	------------------------------------

※100부이상 주문시 사찰명 무료인쇄

마하몰 :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B1 T : 02)732-1520 입금계좌: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